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 11월 9일(월)부터 원서접수

학 부 : 12월 1일(월)부터 원서접수

문의 : 02-944-5000(학부)/5500(대학원)

최고 교수진
최첨단 23,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콥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2번** 출구입니다.

2015



DT브랜드파워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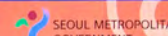


2015 AUTUMN
VOL.30

SCU e이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TEIN Workshop for e-Learning Feasibility Study

September 14-17, 2015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첨단 학문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학문의 완성!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고의 교수진이 열정을 다해 펼치는 교육은
여러분의 지식을 보다 넓고 깊게 넓히는
큰 배움터로서 손색없는 장이 될 것입니다.

SEOUL CYBER UNIVERSITY

CONTENTS www.iscu.ac.kr

특별한 e-이야기

- 04 TEIN 워크숍
- 06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 기념비 제막식
- 08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10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더불어 e-이야기

- 12 2015 한마음 대축제 & 10주년 총동문회
- 14 2015 SCU 부서 워크숍
- 16 국내외 사회복지현장실습
- 18 IAUP 총장대회
- 20 ACU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연수

당신의 e-이야기

- 22 해외명사 인터뷰
- 24 박재동 화백 특강
- 26 교수 & 재학생 & 동문 인터뷰

우리의 e-이야기

- 32 오진환 부처장 교육부장관상 수상
- 33 SCU 신규 콘텐츠 뷰어 및 모바일 앱 오픈
- 34 업무협약 소식
- 36 음악학과 오리엔테이션
- 37 강서교육지원청 봉사자 전문성 향상 연수
- 38 IT 지식나눔 특강
- 39 멘토링 평가회 & 멘토링 결연식
- 40 법무행정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국가고시 합격
- 41 서울지방경찰청 입학설명회
- 42 지역모임 소식
- 44 단신 뉴스
- 48 교수 동정
- 51 가을에 강秋

서울사이버대학교 2015년 AUTUMN VOL.30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이향아 교수

편집위원 김영민, 박병석, 정상원, 한수미, 홍선관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55

感커뮤니케이션 (02)733-2878



서울사이버대학교 주관, 유라시아 초고속정보망(Tein망) 이러닝 워크숍 실시

- 5일 간 아시아 16개국의 정보통신 및 이러닝전문가 초청하여 워크숍 진행
- 향후 유럽과 아시아를 연계하는 이러닝 시스템의 확산 방안 모색
- ASEM 소속 준국제기구인 TEIN협력센터 주최, 서울사이버대학교 주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 16개국의 정보통신 및 이러닝 담당자들을 초청해 본교에서 '유라시아 초고속정보망 활용 이러닝 워크숍'을 개최했다.

총 5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회원국가의 이러닝 담당자들과 국내 교수학습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최근의 이러닝 기술 발전 및 활용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공유와 아울러 TEIN 망을 활용한 이러닝 활성화 프로젝트를 의제로 전문가 특강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TEIN 5주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된 이러닝의 범위와 활용방안 등을 도출하는 과제를 통해 각국 전문가들이 그룹별 토의를 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허효연 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TEIN 프로젝트에서 이러닝이 당당하게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고, 개도국에서 보다 많은



정상원 교수의 안내로 본교 투어중인 참가자들



참가자 대표에게 기념 사진과 수료증을 전달하는 TEIN* CC 김병규 단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 임진혁 교수



본교 B동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된 테인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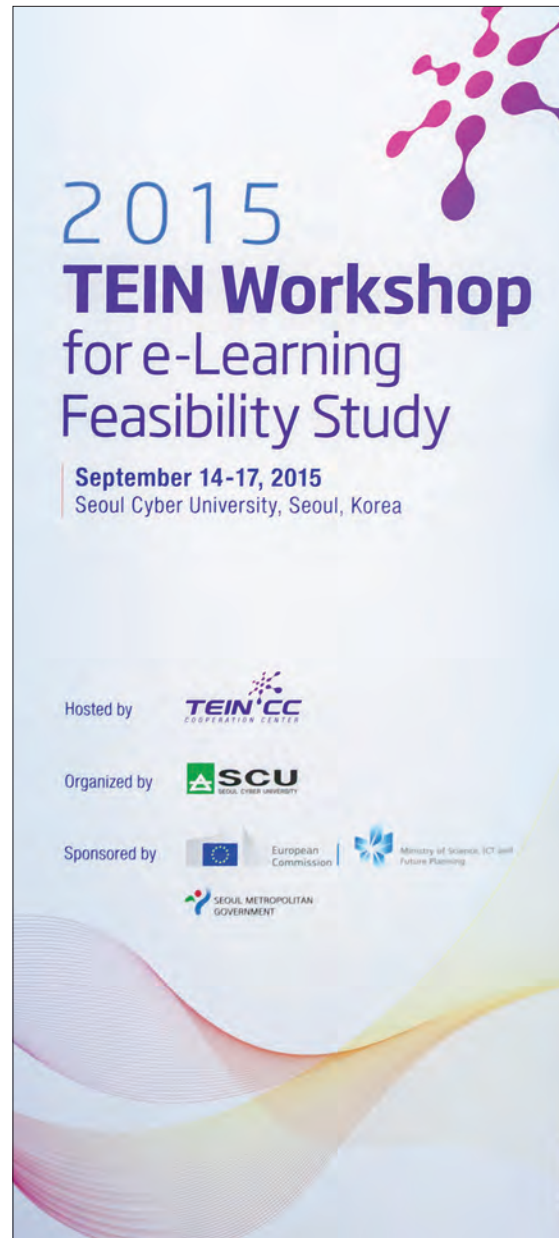
사람들이 이러닝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대한민국 이러닝 선도대학으로서 책임감있게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12년 교육부의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프로젝트(ACU 프로젝트)' 주협력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이러닝 교수설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TEIN 프로젝트란?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연구목적용 초고속 통신망을 말한다. TEIN 사업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삶의 질과 사회적 개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구리당 앞에서 TEIN Workshop 참가자와 정상원 교수, 한수미 교수, 남상규 교무실장 외 본교 관계자의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한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비 제막식

- 광복 70주년을 맞은 8월 15일,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비 제막식 개최
- 역사를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새로운 명소로서 역할 기대



아랫줄 좌측부터 Mary Gann(Acting Consul General of the USA), Lee Seok Bae(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Se Ung (Chairman of the Korea-Russia Arts & Culture Society), Viktor Gorchakov(Chairman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Primorsky Region), Valentin Pak(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organizations of Primorsky Region), Im Chon Il(Consul General of the DPRK)
윗줄 좌측부터 Igor Agafonov(Ambassado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in Vladivostok) Alexander Yurov(Vice Head of Vladivostok), Alexey Starichkov(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Primorsky Region), Brahma Kardji Rupchjoti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India), Nguyen Ai Chung(Vice Consul General of the Socialistic Republic of Vietnam).

러시아인과 한민족의 150년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비 제막식



기념사를 하는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세웅 이사장



블라디보스톡에 설치된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비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 제막식



전통 공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 올해, 멀리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뜻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바로 한·러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연해주 고려인연합회 발렌틱 박 회장,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세웅 이사장, 이석배 한국 총영사, 림천일 북한 총영사, 고르차코프 연해주 의회 의장, 이고르 푸시카료프 블라디보스톡 시장, 네하예프 연해주 부주지사, 연해주 국제협력국 스타리치코프 국장,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부총장, 한국어과 송지나 교수 등 한국과 러시아 교류에 앞장 서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비에는 ‘1864~2014년 러시아인과 한민족의 150주년을 기념하여’, ‘블라디보스톡은 1864~1941년 시기에 한인 거리로 불렸다’는 역사적 사실이 새겨졌다.

특히 기념비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발렌틴 박 회장은 기념사에서 “고려인들에게 연해주는 항상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있다. 특히, 고려인, 조선족 할 것 없이 전 세계 한민족은 하나이므로 통일을 위해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세웅 이사장 또한 축사를 통해 “러시아는 19세기 후반, 고려인들이 국경을 넘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그만큼 한·러 역사에서 의미가 깊지만, 이를 상징할만한 것이 없었다”며 “블라디보스톡은 명소가 많아 방문객 또한 많다.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비는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깨우쳐줄 것”이라고 이번 제막식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한·러문화예술협회는 이번 제막식을 후원하며 한·러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현장



축사를 하는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돈 베츠 총장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시상하는 정영애 대학원장



학위수여식 후 학사모를 날리며 기념촬영하는 졸업생들



특별 공로상을 수상한 박세은 동문과 허요연 총장

새로운 내일을 다짐하는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학사 947명, 석사 75명 학위 수여, 개교 이래 학부 총 23,090명, 대학원 253명 배출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 휘날리며, 무료 폴라로이드 촬영 등 이벤트 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8월 22일(토) 미아동 본교 차이 콕스키 홀에서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

했다. 이상균 이사장, 박영국 이사,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돈 베츠 총장, 신일고등학교 협동교장

이기호 박사, 최경호 교장, 신병철 교감, 김정은 부교감, 신일중학교 권태일 교장, 박태일 교감, 신일중·고등학교 교목실장 박준규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이사장상을 수상한 고아라 동문(상담심리학과)을 비롯한 학사 학위 947명,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발레리나 박세은 동문(사회복지전공)을 포함한 석사 학위 75명 등, 총 1,02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1년 개교 이래 학부 총 23,090명, 대학원 총 2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 초청된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돈 베츠 총장은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생각, 그

리고 세상으로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꿈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한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학위수여식이 모두 끝난 뒤 각 전공 및 학교별 포토 타임에서 졸업생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번 학위수여식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졸업생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태극기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식전행사로 함께 진행하여 졸업생들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의 마지막을 뜻 깊은 추억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진 감독과 함께한 2015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배움과 도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는 특강
- 장진 감독 특강과 함께 입학설명회,
각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지난 8월 1일(토)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서는 영화감독 장진과 함께하는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다.

많은 신·편입생들이 모인 이번 특강에서 장진 감독은 ‘배움과 도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그는 청년이라는 개념을 제도권이든 아니든 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마친 후 그 교육을 토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나이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하였다. “늘 새로운 배움을 익히고 도전하는 사람이 청춘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청년이시며 청춘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특히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분명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예전에는 보통 60세까지의 인생을 준비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

늘 새로운 배움을 익히고 도전하는 사람이 청춘이다

니다. 하지만 이제는 80세, 혹은 100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보통 20대에 끝나버리는 일반 대학 교육으로만 인생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50대에도 배워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진 감독은 집안의 가훈 ‘방법이 없다’를 소개하면서 특강을 마무리지었다.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정답만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사에 관해 알려주는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각 학과 별로 모여 교수와의 만남 및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장진 감독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들



특강 전 라운지에서 허요연 총장과 장진 감독



다양한 게임이 펼쳐진 2015 한마음 대축제



명랑 운동회 전 몸풀기 게임을 하는 참가자들



페이스 페인팅 행사



다양한 미션과 함께 진행된 이어 달리기



한마음되어 축제를 즐기는 참가자들



허요연 총장과 종합우승을 차지한 승리팀

서울사이버대학교 2015 한마음 대축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토) 신일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제12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10주년 총동문회 기념식과 함께 열려 더욱 뜻 깊었던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과 가족, 교수, 직원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해 명랑운동회, 퀴즈 이벤트, 장기자랑 등 팀별 체육경기와 게임을 즐겼다. 허요연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 멋진 가을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합

-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함께한 한마음 대축제 & 10주년 총동문회 기념식
- 명랑운동회, 포토미션, 장기자랑 등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만들어

께 어울려 유대감을 가지고 열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마음 대축제에서 참가자들은 각각 승리팀, 환희팀, 기쁨팀 및 희망팀으로 나뉘어 지구날리기, 이어 달리기 등과 같은 명랑운동회와, 6개 팀이 참가한 장기자랑, 그리고 축하공연까지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을 즐겼다.



그룹 '놀자'의 축하공연



웃음이 가득했던 개그맨 축하공연



참가자의 장기자랑 현장



학생처

2015. 9.11(금)~12(토)
경상남도 남해

“이번 학생지원팀 워크숍에서는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바다를 보며 학생들의 활동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다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정보지원센터

2015. 9.11(금)~12(토)
제주도

“SCU Vision 2022 ‘세계 일류 사이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봉인 한라산을 등정하면서 힘들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정보지원센터를 느꼈으며 이를 통해 팀워크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화합과 목표를 다짐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서별 워크숍

WORKSHOP

두말할 것 없이 대학은 교육을 행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과 교육을 실천하는 교수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각 행정부서 직원들이다. 학생과 학교를 이어주는 든든한 징검다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 서로간의 화합과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화합의 워크숍 현장을 찾아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담아보았다.



입학처

2015. 9. 18(금)~19(토)
경기도 청평

“저희는 청평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직원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내년도 주요 입학전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과 조교

2015. 9.11(금)
코엑스 아쿠아리움

“학생 상담 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학과 조교 선생님들에게 상담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학과별 상담에 대한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스피치 시간에는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학부 2015 하계 일본 사회복지현장 실습

2015 하계 일본 사회복지현장실습에 참여한 윤용선 학우(좌측)와 홍유선 학우(우측)

- 경기도 하남시 소재 영락노인전문요양원과 후쿠오카현 소재 나나쿠마노사또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학부, 휴먼서비스대학원 학생들이 선진복지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5 하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복지현장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의 노인복지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학생들



일본 사회복지현장 실습 후 수료증을 받은 참가자들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진행된 2015 하계 일본 사회복지현장 실습

본교 사회복지학부,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지난 6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과 일본 후쿠오카에 소재한 그룹홈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

구체적 일정은 6월 6일부터 경기도 하남에 소재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진행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 소재하며 지역밀착형소규모다기능서비스와 소규모생활시설인 그룹홈인 나나쿠마노사또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학부의 이서영 교수와 실습 수퍼바이저 한보미 과장, 그리고 학부학생 5명,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이번 하계해외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국내외의 노인복지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양국의 노인복지현장을 살펴보고 노인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의 해외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양한 분야의 선진제도를 학습하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학부학생과 대학원생이 함께하는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용선 학우
노인복지전공 3년

일본처럼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설에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케어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Brief Interview



홍유선 학우
노인복지전공 4년

복지시설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제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직업을 넘어 진심을 담아 케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총장협회(IAUP) 50주년 기념식 참석 세계와 호흡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호주 본드대학교에서 개최한 세계총장협회(IAUP)
- 세계 유수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위상을 보여줌



세계총장협회(IAUP) 5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가 개최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이은주 부총장



호주 본드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총장협회 현장



(좌측부터) Sir Enan Galaly, Chair of the IAUP Council of Senior Advisors, and Neal King, Chair of the IAUP Board of Directors



세계총장협회(IAUP)에 참석한 세계 유수 대학 총장들과 대학관계자들

세계총장협회(IAUP)가 5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지난 5월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기념식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부총장(IAUP 실행이사 Executive Director)이 참석하여 세계 유수 대학의 관계자들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옥스퍼드대학의 앤드류 해밀턴 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5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에는 37개 국가의 150개 대학의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IAUP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50년을 향하여 고등교육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은주 부총장은 지난 10월 14일(수)부터 10월

17일(토)까지 호주의 본드대학교(Bond University)에서 개최한 IAUP 회의(Semi-annual meeting)에도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드대학교의 팀 브레이일스포드(Tim Brailsford) 총장을 비롯한 11개국의 30명의 총장 및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학의 기술적 혁신과 성공적인 국제협력 증진'이라는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한편 세계총장협회(IAUP)는 1965년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페어리디킨슨 대학의 록스톤칼리지에서 설립되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으며 그간 세계 고등교육을 대표하며 평화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각 대학들 간의 활발한 협력관계와 상호이해 및 존중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사이버대 산학협력단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실시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의 사업기간 중 올해 2차년도 현지 연수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8월 3일(월)에
서 7일(금)까지 5일 간 라오스에서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과정'을 실시하였다.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과정은 지난 해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첫해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하였고 2차 년도인 올해는 라오스 현지
에서 파견 연수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수의 주된 교육내용은 ▲원격교육 기술역량
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분야별 연수
모듈에 의한 그룹별 개별화 수업 및 실습 ▲라오스
내 ICT센터 및 교육연구소(RIES) 시설을 활용하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1차년도 참석자를 포함, 라오스 현지 중등교사, IT
기술자, 영상 관계자, TV 및 라디오 방송국 기술진,
ICT센터 전문인력 등 다양한 경력의 참가자들이 함
께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선진 원격교육의 노하
우를 전수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올해 2차년도 원격교육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성공
적으로 마친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의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3차년도 연수를 기
획하여 대한민국 대표 원격대학으로서 그 입지를 더
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실의 시간

만물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도
다양한 수확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교육이라는 씨앗을 통해
어떤 달콤한 열매가 맺어졌는지,
그 행복한 결실들이 펼쳐집니다.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 참석자들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된 연수 현장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반 교육 현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선견지명이 있는 학교입니다

- 125주년 전통의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
돈 베츠 총장 방문 인터뷰
- 학위수여식 참석 등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함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본교 출신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Central Oklahoma University 이하 UCO)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학은 오클라호마주에 설립된 최초의 주립대학으로서 125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7개로 구성된 학부와 단과대학에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는데, 그 중 10%가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도 활발하게 학술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CO는 정규 학위과정 혹은 비학위 과정에서 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 대학은 오래 전부터 이러닝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오프대학이기 때문에 기존 강의에 이러닝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의 전에 이러닝을 통해 수업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꾸로 학습법(flipped learning)’을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UCO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대학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혹시 대학 간 이러닝을 통한 학점교류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지요?

UCO는 현재 1,7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수학하고 있고 한국에 유일하게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미국대학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닝을 통한 학점교류에 관심이 있고, 또 가능합니다. 여러 역량 있는 교수님들이 일단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선결과제이고 인터넷과 학습관리

시스템 같은 기술 혹은 기능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리더십과 강력한 의지(willingness)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교의 2014학년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식사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UCO는 어떻게 이 책임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희 대학은 먼저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히스패닉계 빈곤층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립학교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집 짓기운동(habitat)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란,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관을 겸비한 학생들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저희 대학을 방문하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저희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사이버대는 선견지명이 있는 대학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인프라와 저희 대학처럼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21세기에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학이라고 사료됩니다. 졸업식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서울사이버대 학생인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 대학 간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권구순 교수와 인터뷰 중인 돈 베츠 총장



(좌측부터) 권구순 교수, 정상원 교수, 돈 베츠 총장, 이은주 교수, 이동준 선생

박재동 화백 스튜디오 특강

- 세계적 콘텐츠로서 한국만화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에 대해 부탁



대형 스크린에 직접 만화를 그리며 강의를 진행하는 박재동 화백

그렇게 천대받던 만화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만화진흥법」도 생겨나고... 만화가의 인생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영원히 천한 것도 귀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시사만화는 박재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평가받는 만화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도 재직 중인 박재동 화백이 지난 8월 20일(목) B동 대형스튜디오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박재동 화백’ 하면 독자들은 대부분 신문에 연재됐던 만평을 자연스레 떠올린다. 상상력 넘치는 화풍, 재기발랄한 풍자, 일급의 촌철살인 멘트는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저는 만화를 정말 좋아하고 오랫동안 사랑해 왔어요. 10살 때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는데, 저희 집이 만화가계를 했거든요. 온 사방이 만화로 둘러싸인 공간은 저한테 보물섬 혹은 천국처럼 느껴졌죠. 아마 전국에서 손꼽히는 행운아가 아니었을까. 크면서 봤던 『칠성이 탐정』, 『라이파이』 같은 만화들이 저한테 만화가로서 자양분이 돼 줬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청소년 시절, 박재동 화백이 만화를 보면 어른들은 나무라곤 했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화는 나쁜 것, 불온한 것, 잘못된 것으로 취급됐다. 그래도 박재동 화백은 만화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다. 성인이 되어 만화가로 자리매김한 뒤 박재동 화백은 만화도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말이 실현돼서 몇 년 뒤에 진짜 중학교 교과서에 만화가 실렸죠. 그렇게 천대받던 만화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만화진흥법」도 생겨나고... 만화가의 인생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영원히 천한 것도 귀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봤을 때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면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박재동 화백은 세계적 콘텐츠로서의 한국 만화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독자들이 만화를 많이 애용해 주길 바란다는 특강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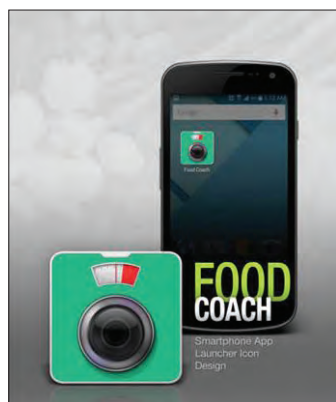
박재동 화백(중앙), 구국도 입학지원관리실장(우측)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재학생들과의 기념촬영

Design by SCU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합니다

- 2015 Blue Award 대한민국학생디자인공모전
회장상을 수상한 김현식 동문
- 청소년 비만 해결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는 앱을 디자인



지난 2년은 꿈을 구체화시키는 시기였습니다



회장상 작품인 스마트폰 앱
'Food Coach' Launcher Icon Design

강과목 중에 스마트앱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었습
니다. 과제로 한 아이콘 디자인을 보고 교수님께서

2013년 하반기 멀티
미디어디자인학과
편입생으로 들어와
올해 하반기에 졸업
하였습니다.

Welgate라는 회사
의 UXDesign그룹에
근무하며 만학의 꿈
을 키웠습니다. 제가
이번 2015 대한민국
학생디자인공모전에
나가게 된 계기는 수

공모전 출품을 권해 주셨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앱디자인의 주제는 청소년 비만 문제가 심각하
다는 것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
아 학생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게 되고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식단관리부
터 운동 및 영양관리까지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는
앱을 디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
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서울사이
버대학교에서 세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제 꿈을 더
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지식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였기에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진행된 2015 대한민국 학생디자인공모전 심사 현장

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 중심 통일

-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
첫 남북 주민 생애 나눔 프로젝트 진행
- 동아일보와 남부하나재단이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에 주도적인 역할 담당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주민이 하나되어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모델을 참고하여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독일은 통일 후 서로 일면식이 없는 서독주민 5명과
동독주민 5명을 2박 3일 간 한 곳에 모아 서로를 알
아가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경험과 생활방식을 공유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동아일보와 남부하나재단이 기
획하여 1박 2일 간 남북 주민 생애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의 작은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남북 출신 참가자들이 함께 지
내면서 그 순간의 공간을 역동적인 '통일의 작은 모
형'으로 받아들여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서로를 봐 왔다는 것을 깨닫고 통일과
정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남북 주민간 심리적 갈
등과 충돌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함을 잘 보여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민 생애 나눔 프로젝트 현장에서 채정민 교수와 참가자들

이제 남북은 인간 중심 통일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7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마음의 장벽은 단순히
체제가 통일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사라
지지 않습니다. 남북 주민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
고 살아갈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
미에서 이번 남북 주민 생애 나눔 프로젝트는 그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주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인간 중심 통일(personalized
unification) 패러다임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야 합니다. 통일부에서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
디 이것이 실현되어 남북 주민이 마음의 통일을 이
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안의 무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 상담심리학과 고아라 동문, 학위수여식 최고상인 이사장상 수상
- 사회복지학도 복수전공으로 이수, 2배의 성실과 노력으로 이룬 결실

방향 끝! 내 진짜 적성을 찾아서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아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 고아라 학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수업이 귀에 들어 오지 않았고 졸업을 못한 채 이른 취업을 선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졌다.

“회사에 다니면서 아쉬우니까 제가 늘 배우고 싶었던 심리학 전공을 알아봤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어머니의 지인분이 추천해줬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당신이 졸업하셨는데, 수업도 좋고 배운 것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결심하고 상담심리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겪어본 올해는 어머니를 가족상담학과로 편입할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온·오프라인 따로 또 같이, 쌍방향 학습

고아라 학우는 학부 때 학습멘토의 추천으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했다. 남들보다 1학기 졸업시기가 늦은 것은 이 때문. 그럼에도 학위수여식 때 최고상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라 지역 스터디 모임에 나가서 다른 학우들에게 학문적 도움도 받고 친분도 쌓으면서 꾸준히 교류했어요. 대신 동영상 강의는 최대한 밀리지 않게 듣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기한을 꼭 지켰고요. 예전엔 공부가 별로였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와선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저를 잘 트레이닝시켜 준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맙습니다.”

수업 콘텐츠 하나하나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공부가 재밌다 보니
자연히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 휴먼서비스대학원 발레리나 박세은 동문, 학위수여식 특별공로상 수상
- 정직하고, 좋은 향기가 나며 순수한 발레를 펼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세웅 명예이사장님, 허묘연 총장님,
그리고 이희연 교수님을 비롯한
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발레리나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정상의 파리오페라발레단 발레리나가 된 박세은, 그런 그녀가 지난 8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발레리나, 그 계기가 궁금하였다.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서구 유럽의 발전된 사회복지제도를 경험하였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국제적으로도 강건한 복지제도를 구축해야하고 미흡하나마 저 또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 놓인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박세은 동문은 최근 큰 사고를 당했다. 리허설 도중 동료의 구두 굽에 이마가 찍혀 6cm가량 꺾매는 부상을 입은 것. 그러나 그녀는 오롯이 이를 혼자 견뎌내야만 했다.

“아마 제 인생 가장 큰 사고였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제가 이겨내야 하는 몫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무용수들의 춤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 보이고는 하는 데요. 제 춤에 있어서는 더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향기가 나는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허묘연 총장에게 특별공로상을 받은 박세은 동문

항상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서울사이버대학교

- 지난 7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 지원근무 및 안전조치 봉사를 진행한 박경운 학우



광주U대회에서 경찰관과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먼저 지난 광주U대회에서의 봉사활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경기경찰청 제9기동대 행정팀장으로 재직 중인데 경기청에서 광주U대회 지원근무를 나갔었습니다. 봉사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경찰관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 경기장마다 안전요원으로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경기장에서 여러차례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실제 목격했고 또 경찰 선배로서 그들을 돌봐준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 학부과정이 1학기 남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도 진학하여 상담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명언이 있지요. “Stay Hungry, Stay Foolish(항상 갈구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이 말처럼 후배 여러분들도 부단히 같이 노력하고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경찰관 동료들과 함께 연말에 어려운 청소년돕기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서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서울사이버대학교

- 부동산 컨설팅, 임대, 분양대행을 하는 (주)WC&C 이여정 대표 인터뷰
- 부동산 저서 출간, 경기미스코리아 행사 주관 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이여정 대표가 행사 주관한 2015 경기미스코리아대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2년에 입학해서 2006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벌써 졸업한지 10년이 되었네요. 일을 하면서 공부할 한다는 것.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 일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종종 있는 오프라인 모임도 열심히 하기 위해 총무 등의 직책을 맡아서 그 누구보다 많은 학우들과 선배님, 후배님들과 교류했습니다. 정말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지금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젊음의 순간입니다. 서울사이버대를 입학하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도전하신 분들입니다. 후배님들의 그 도전과 열정에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교수님들 그리고 학우님들과 끈끈한 신뢰를 쌓으신다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에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나
일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진환 부처장,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 서울사이버대학교 및 원격대학이
고등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데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우리 대학 기획조정실 오진환 부처장이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9월 8일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허묘연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오진환 부처장의 이번 수상은 대외적으로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재정관리자협의회를 주도하여 각 사이버대학의 회계정보를 통일시키는데 이바지하였고 또한 사이버대학 재정부문의 제도개선과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특히, 내적으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2007년과 2013년 실시된 사이버대학 중합평가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최우수 사이버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대학이 조기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인정받았다.

오진환 부처장은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더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물론 대한민국 원격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규 콘텐츠 뷰어 및 모바일 앱 오픈

- 서울사이버대학교, 2학기부터 새로운 콘텐츠 뷰어 및 모바일 앱 오픈
- Adaptive Source Multi Device를 통해
98% 이상의 콘텐츠가 PC, 모바일 동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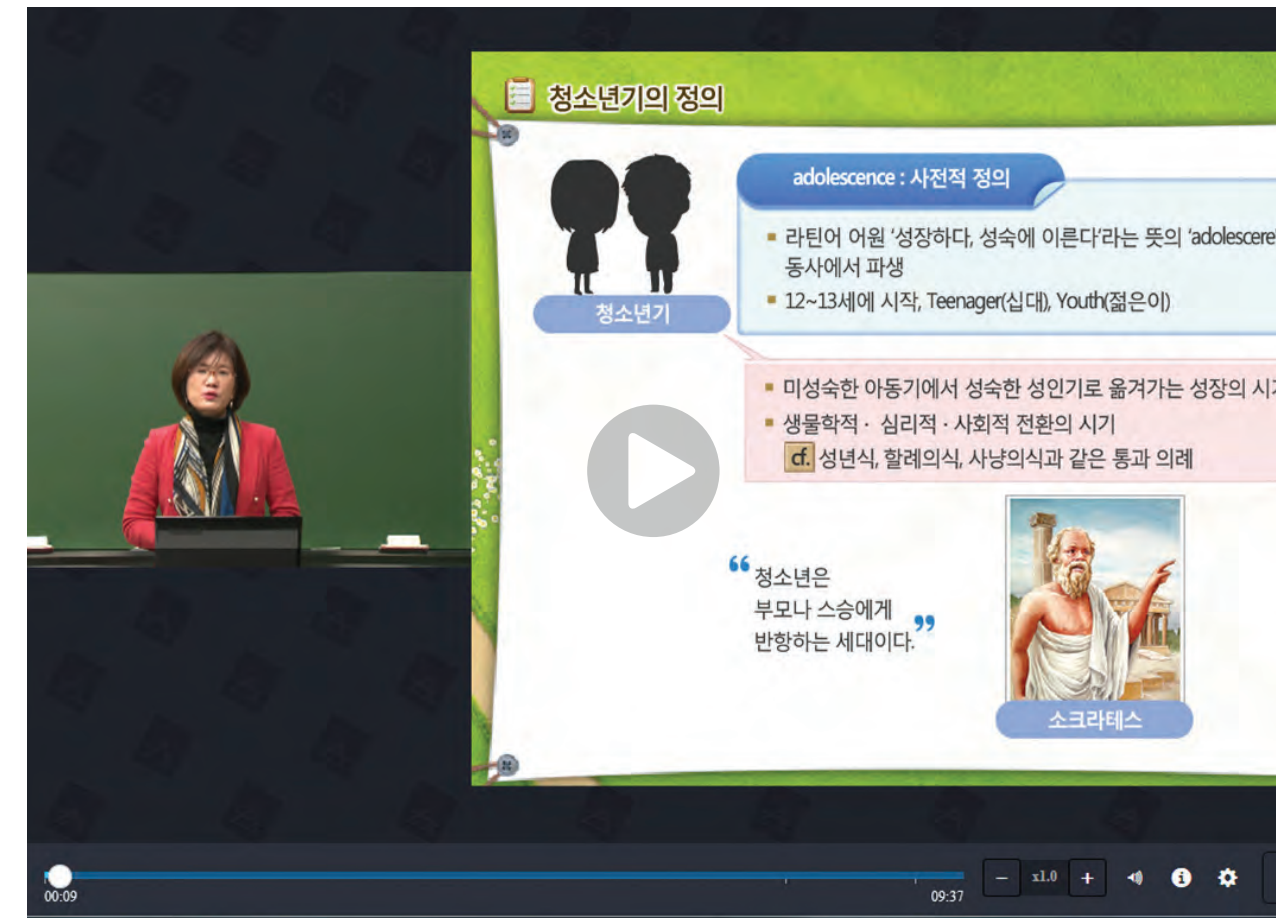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 개발팀은 2015학년 2학기부터 신규 콘텐츠 뷰어 및 모바일 앱을 오픈·운영하고 있다.

더욱 스피드하고 심플하며 스마트해진 이번 신규 콘텐츠 뷰어 및 모바일 앱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하되 확장성을 주고, 오직 콘텐츠에 집중하며 기능의 자동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자세한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콘텐츠 뷰어는 ▲뷰어 구동속도의 개선 ▲ 마지막 수강 위치 기억 및 기기간 이어보기 기능 추가 ▲ 영상 속도를 0.1 단위로 임의 조정 가능 ▲ 강의영상의 픽셀 깨짐 현상 개선 ▲ 세로보기 모드 추가 등으로 최신 웹표준 기술인 Html5를 적용하였다.

SCU4로 명명된 모바일 앱 또한 ▲ 구글, 애플 앱 모두 각각의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최고의 보안성 유지 ▲ 구동속도 향상 ▲ PC와 동일한 뷰어를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 유지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신규 콘텐츠 뷰어와 모바일 앱 오픈은 Adaptive Source Multi Device를 구현하여 사용자들이 전체 콘텐츠 중 약 98%를 PC와 동일한 콘텐츠 형태로 모바일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협중앙회와 업무제휴 협약 체결

- 장학 혜택 및 입학금 면제 등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본교 스튜디오를 방문한 신협중앙회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10일(목) 신협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장학 혜택과 입학금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 미아캠퍼스를 방문한 신협중앙회의 주진우 기획관리이사, 최효근 연수원장, 이환영 서울지역 본부장, 허영진 교육지원팀장 등은 허묘연 총장 및 대학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첨단시설을 하나하나 살펴 보며 일정을 바쁘게 소화했다.

협약식에서 주진우 기획관리이사는 “6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신협협동조합의 인프라가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상호간에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허묘연 총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신협협동조합이 얼마나 내실 있고 신용도가 높은 기관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평생에 걸쳐 장기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협협동조합과는 닮은 점이 있는데, 교육이나 인재 양성 측면에서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밀줄 좌측 네 번째부터) 허묘연 총장, 이완형 입학처장, 전광호 학생처장과 신협중앙회 관계자 및 본교 교직원들

인천병무지청과 장학협약 체결

- 인천병무지청과 사회복무요원 장학 혜택을 위한 협약 체결



협약서에 서명하는 남재우 청장과 허묘연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군경상담학과를 개설하는 등 군 · 경찰 · 교도 분야에서의 교육 지원과 문화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일(화) 본교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병무지청과 사회복무요원 장학 혜택 협약식을 가졌다.

인천병무지청 남재우 청장은 협약식에서 “운전할 때 흘러나오는 라디오 CM송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친근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며 “수입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는 것은 병영의무이행 기간 중 자기계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허묘연 총장은 “군 관련 교육이 특화된 것이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특징 중 하나”라며, “특수한 환경에 처한 젊은 친구들이 폭넓게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력하여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재우 청장을 비롯한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들은 협약식 후 본교의 첨단 시설을 견학하고 본교의 교육인프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들과 허묘연 총장(중앙), 이지영 교수, 이정원 교수, 전광호 학생처장, 이완형 입학처장, 구국모 입학지원관리실장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오리엔테이션 실시

- 본교 B동 8층에 오픈한 **피아노 스튜디오**를 보며
앞으로의 교육을 기대



1:1 레슨을 하고 있는 이경숙 교수

지난 9월 12일(토) 본교 카페테리아에서는 2015학년도 2학기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신입생들을 위한 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음악학과가 개설되고 첫 입학생인 신입생들은 이경숙 석좌교수, 나정혜 교수, 신지연 교수와 함께 브런치를 즐기며 학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경숙 석좌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멋진 선택을 하신 분들이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음악학과 교수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다과를 끝낸 후 학생들은 최근 완공된 피아노 실습실을 둘러보며 그 규모와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한 학생은 “수업을 위한 완벽한 피아노 실습 시설에 놀랐다. 원격으로 교수님과 1:1 강의는 물론 오프라인 수업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며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편 사이버대 최초로 음악학과(피아노전공)를 개설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차이콥스키 음악원과 원격 교육을 비롯해 교수진, 학생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학생상담봉사자 전문성 향상 연수

- 지난 해에 이어 본교에서 강서교육지원청
학생상담봉사자 **전문성 향상 연수** 개최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월 14일(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송정기)의 학생상담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향상 연수를 개최하였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에는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 활동 중인 봉사자 102명이 참석하여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전문적인 상담기법을 습득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가족상담학과 학과장 김요완 교수와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의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김요완 교수는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하버드-스탠퍼드 거짓 합작 소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가족의 역기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이우경 교수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 참석자는 “상담 전공 교수님들의 특강을 통해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이 가진 전문성 향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고 나아가 전문상담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 상담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좌측 세 번째부터) 신지연 교수, 이경숙 교수, 나정혜 교수와 음악학과 재학생들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김요완 교수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이우경 교수

WAVE 봉사단 IT 지식나눔 특강

- WAVE 봉사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스크래치 코딩 교육 실시



특강을 경청하고 있는 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지난 8월 18일(화) 특별한 지식나눔특강, 'Pro Bono' IT 지식나눔 <스크래치> 교육봉사를 A동 5층 스튜디오에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내년 중학교 의무교육예정인 스크래치 코딩교육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강의로 5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의실을 꽉 채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스크래치는 이야기와 게임,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어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MIT 대학이 개발하였으며, 8세 이상의 아이들이 창의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맡은 이성태 교수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정의부터 사이트 접속까지, 아직은 아이들에게 생소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하였다. 아이들 또한 컴퓨터, 스마트 폰 등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설명에 따라 하나 하나 실행해보고 프로그램을 익혀가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갔다.

멘토링 평가회 & 멘토링 결연식

- 총 64명의 멘토들에게 인증서 수여, 우수 멘토 & 멘티 시상식 진행

지난 8월 23일(토)에는 2015학년도 1학기 SCU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 & 멘티를 격려하는 평가회 및 2학기 멘토링 결연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허묘연 총장과 전광호 학생처장 등 학교 관계자와 한 학기동안 멘토&멘티로서 활동한 학생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허묘연 총장은 축사를 통해 "2008년부터 시작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그 이름에 걸맞게 멘토&멘티분들이 '서로 나누고 도전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특히 깊은 애교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멘토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멘티분들도 다시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선순환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SCU 멘토링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부동산학과 김광선 학우를 포함 총 64명에게 멘토 인증서가 수여되었고, 우수 멘토 8명 우수 멘티 7명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또한 포트폴리오 공모 시상에서는 대상을 받은 노인복지전공 나한희 학우의 '어깨동무'를 포함, 총 4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포트폴리오 대상을 받은 나한희 학우



IT 지식나눔 특강을 마치고 이성태 교수(좌측)와 참여 학생들과의 기념촬영



멘토링 평가회 및 결연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는 허묘연 총장(중앙), 전광호 학생처장 그리고 참가자들

법무행정학과의 이름을 드높이다

- 조신영 동문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및 유해길 학우 9급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



사법시험 최종 합격한 조신영 동문

지난 9월 반가운 뉴스가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로 전해졌다. 바로 법무행정학과 조신영 동문(2009년 졸업)이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한 소식을 전한 것이다. 2007년에 우리 대학으로 학사편입한 조신영 동문은 재학 중인 2008년에 사법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합격이 있기까지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조신영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닐 때가 군복무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김 교수님과 사법시험 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하면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격려해 주셔서 더욱 용기를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신영 동문은 “바른 길을 걷는 법조인이 되어 대한민국 법조계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며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유해길 학우 또한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처럼 우리 대학 법무행정학과 출신 동문 및 재학생들이 각종 국가 시험에 합격하면서 학과는 물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좌측부터)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 조신영 동문, 이정신 겸임교수, 구국모 입학지원관리실장

서울시 경찰을 위한 입학설명회 개최

- 6월과 11월 본교에서 경찰 대상 입학설명회 실시
- 서울지방경찰청, 허묘연 총장에게 감사패 전달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허묘연 총장

1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5일간 우리 대학 차이콥스키홀에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구은수 경찰청장) 신입경찰 현장 교육이 실시되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본교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에서 지방청 신입 경찰관들은 사건현장 초동조치 요령 등 직무교육과 인권 및 공직윤리 등 인성교육을 받았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인 6일(금)에는 신입 경찰을 대상으로한 본교의 입학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완형 입학처장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로 인정받는 군경상담학과를 비롯, 스마트러닝, 1년 4학기제, 현장전문가와 연계된 팀 티칭 등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특화된 교육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러한 우리 대학의 협조에 대해 지난 7월 27일(월) 서울지방경찰청은 본교 허묘연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신입경찰 현장 교육과 같은 경찰교육의 본교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루어진 이날 전달식에서 허묘연 총장은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완형 입학처장

우리의 행복한 e-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8월 더위에 맞서 시원한 계곡에서 펼쳐진 래프팅, 9월 새로운 신·편입생을 위한 환영회, 그리고 학습증진과 취미활동은 물론 봉사활동을 위한 모임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지역 모임에는 행복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사이버를 넘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진정한 서사대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번 호에는 경남지역, 강원영서지역 그리고 서울남부지역모임의 행복한 e-이야기를 담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경남 산청군 웅석관광농원에서 진행된 경남지역모임 여름 하계MT

경남
지역
모임

늦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다!

경남지역모임 “하계MT”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29일 경남지역 모임의 서사대인들이 이 경남 산청군의 웅석관광농원에 모여 여름 하계MT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의 메인이벤트는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래프팅이었다. 참석자들은 서로 서로 함께 노를 저으며 신나는 여름 스포츠를 즐겼으며, 저녁 식사 후 이어진 개인 노래자랑 시간에는 문화예술경영학과 배철이 학우의 악기 연주 및 재능기부를 통해 참석 학우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박 2일 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전광호 학생처장 외 참석자들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



래프팅 전 기념촬영

강원
영서
지역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원도 영서지역모임 ‘신입생 환영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는 지난 9월 19일 강원 영서지역모임 학우들이 모여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환영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수강 방법 및 대학생활 안내 등 신·편입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간이었다고 2부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처음 오프라인 모임을 접한 강원영서 지역 신·편입생들은 참석 소감에서 사이버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 되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성실히 참석하여 돈독한 학우애를 쌓아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박병석 교수(좌측 두번째)와 기념 촬영

서울
남부

학습 취미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서울 남부지역모임 “활동 소식”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수많은 지역모임 중 서울 남부지역모임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민들레봉사단, 문화탐방 및 맛기행, 종이접기와 공예, 춘계 체육대회 그리고 공부 품앗이 활동인 학습 오리엔테이션까지 봉사, 취미, 학습 활동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4년 간의 길다 먼 긴 대학생활 동안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 남부지역모임의 활동이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한달에 한번 봉사활동을 하는 서울남부지역 민들레 봉사단



Brief Interview 김명옥 학우 상담심리학과 1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부지역모임에서 홍보부 국장을 맡고 있는 김명옥입니다. 저희 서울 남부지역모임은 대가 족인 서사대인들이 서로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날 수 있는 학우들을 모아 핵가족화해서 혼자 하기에는 힘든 온라인 교육을 함께 어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모임 학우들께 편안하고 멋진 율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 남부 파이팅!~

SCU NEWS



① 본교 투어를 마치고 UCO 대학 관계자와 김현진 교수와 정상원 교수(좌측 세 번째부터) ② A동 3층에 진열된 실제 Space suit 앞에서 기념촬영

UCO 대학 관계자,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

지난 9월 11일(금) UCO 대학 관계자 Dr. John Barthel(Provost and Vice President), Dr. Dennis Dunham(Executive Director of the Global Office), Mr. Weldon Rice(UCO Korea Office Manager), 이성남 대표(UCO Korea Office Representative) 등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양교간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본교 허묘연 총장, 정상원 교수, 김현진 교수와 함께 교환학생, 공동연구,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① (좌측부터) 박기훈 교수, 김수지 전 총장, Golden Msilimba 박사, 허묘연 총장 ② 대형 스크린에서 직접 시연중인 허묘연 총장

말라위 교육부 장관, Golden Msilimba 박사 방문

지난 9월 23일(수) 말라위 교육부 장관(Deputy Chief of Higher Education in Malawi) Golden Msilimba 박사가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본교 김수지 전 총장이 말라위 측에 본교의 앞선 이러닝 기술과 교육인프라를 소개하기 위해 직접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김수지 전 총장과 허묘연 총장 및 박기훈 교수의 안내로 투어를 진행한 교육부장관 Golden Msilimba 박사는 본교의 교육시설에 깊은 감명을 받고 하루빨리 말라위에도 이러한 이러닝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SCU NEWS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컴퓨터 왕초보 특강

이성태 교수, 컴퓨터 왕초보 무료 특강 실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지난 7월 30일(목) 본교 A동 5층 스튜디오3에서 재학생을 위한 컴퓨터 왕초보 무료 특강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소위 컴맹이라는 말을 들으며 정보화 사회에 소외되었던 참석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본교 홈페이지 사용은 물론

인터넷 환경과 포털 사이트 접속 등 컴퓨터 운영 전반에 대해 배우며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보다 더 친숙해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글쓰기 특강을 진행 중인 임세희 교수와 대학원생들

임세희 교수, 대학원생을 위한 글쓰기 특강 실시

사회복지학부 임세희 교수는 지난 7월 16일 B동 203호에서 사회복지대학원생들을 위한 글쓰기 특강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논문과제 지도를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 참여 학생들은 논문은 물론 리포트, 보고서 등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실용적 조언을 들 수 있었다.



스튜디오 특강을 마친 후 서은국 교수와 참가자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행복' 특강

9월 15일(화)에 본교 대형 스튜디오에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특강이 실시되었다. '행복, 결국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서교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됐다"라고 말하면서 행복의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는 자신의 행복론을 펼쳤다.

SCU NEWS



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토존에서 참여 학생들 기념 촬영 ②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참가 학생

2015년도 제9회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서울특별시와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심사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사이버대학교 후원

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기능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본교 또한 고등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젊음의 기능성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매년 후원하고 있다.



① 본교 A동 스튜디오1에서 진행된 하반기 댄서스잡마켓 ②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는 참가자들

2015 하반기 국내 합동 댄서스잡마켓 오디션 실시

8월 25일(화) 본교 A동 스튜디오1에서 2015년 하반기 국내 합동 '댄서스잡마켓' 오디션이 상반기에 이어 개최됐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박인자)가 주관하는 오디션 댄서스잡 마켓(Dancers' Job

Market)은 공연에 출연할 무용수가 필요한 무용단체와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무용수를 연결해 주는 공개오디션이다. 이는 우수 무용수를 발굴하여 무용단체와의 연결에 성공하여 해마다 좋은 결실을 맺어 왔다. 본교는 이러한 오디션을 매년 후원함으로써 무용예술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SCU NEWS



① 전달식 후 허묘연 총장(우측 세 번째), 전광호 학생처장(좌측 두 번째)과 서마클 임원진들 ② 지난 8월 진행된 서마클의 일일 호프 현장

마라톤 동아리 서마클, 학우들을 위해 장학금 전달

지난 9월 22일(화) 서울사이버대학교 마라톤 동아리(이하 서마클)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전달식에는 허묘연 총장을 비롯, 전광호 학생처장 등 학생처 관계자와 서마클의 남태우

회장을 비롯한 동아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장학금은 서마클 회원들이 지난 8월 일일 호프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한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증하면서 이루어졌다. 남태우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장학금 모금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 시사회 현장

신·편입생을 위한 '미션 임파서블' 시사회

8월 6일(목) 명동역 CGV에서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시사회가 열렸다. 이번 시사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에서 입학지원자 및 신·편입생을 초청한 이벤트로 총 100명에게 초대권을 배부하였다. 액션영화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미션 임파서블'은 1996년부터 시작된 시리즈물이며 이번이 5편으로 전 세계적인 흥행 성적을 거두었다.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에 참가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후원,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

10월 5일(월)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홍종화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렸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한 이번 독주회에 허묘연 총장을 비롯한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바이올리니스트 홍종화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와 온화함이 어우러진 무대로 유명하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동정



권금주 교수

논문 게재 및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는 2015년 5월 31일 발행된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지』에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발표하였고 6월 30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행한 학회지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7월 11일에 개최된 '제12회 고령자학대방지학회'에서는 「한국의 시설내 고령자학대 판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미주 교수

학교보건 관련 논문 게재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2015년 8월 31일 발간된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 「건강증진모델학교 분석: 읍면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영민 교수

국제운송 관련 저서 출간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5년 8월 25일 도서출판 두남에서 저서 『국제운송론』(개정판)을 공동 출간하였다.



김용희 교수

수도권 부동산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2015년 6월 30일 (사)대한부동산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한부동산학회지』에 「수도권 지역분석에 관한 연구(1980-2013)」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지영 교수

건강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는 2015년 9월에 발행된 『한국건강심리학회지』에 「강점개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강점집단, 통합집단, 약점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현진 교수

원격교육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2015년 8월 31일 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평생학습사회』에 「사이버대 학생을 위한 한국판 비합리적 지연 척도 타당화」라는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하였다.



김환 교수

대인외상충격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는 2015년 8월 31일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간하는 『상담학 연구』에 「대인외상충격이 자기체계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발연령의 조절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하였다.



박병석 교수

외교연설 분석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4호(2015년 9월 30일 발행)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외교연설 중 중국 전통사상 인용(引用)의 수사 오류 분석」이라는 제목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였다.



박종선 교수

주제 발표 및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박종선 교수는 2015년 9월 16일에서 9월 18일까지 필리핀에서 진행된 'International Congress e-Learning(ICE 2015)'에서 "ACU's e-Learning Initiative Programs for the ASEAN"이라는 제목으로 Plenary 세션에서 주제를 발표하였고, 같은 학술대회에서 "Case Study for Learning Analytics Based e-Learning Course Monitor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형원 교수

도서 출간

아동복지전공 박형원 교수는 2015년 6월 30일 도서출판 신정에서 『위기개입의 이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박태정 교수

커뮤니티 관련 논문 발표

복지시설경영전공 박태정 교수는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학술회의 'The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Village Community as Alternative Community Development Method in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서영 교수

고령자학대 관련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이서영 교수는 2015년 7월 11일 개최된 '제12회 고령자학대방지학회'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시설내 고령자학대 판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성태 교수

감성콘텐츠 관련 논문 게재 및 디자인 전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한국디자인문화학회가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주관한 전시회에서 "Sharing Point"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7월 20일에서 7월 31일까지 한국콘텐츠학회가 주관한 전시회에서는 "My Alter Ego"라는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2015년 9월 30일에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에 「LOL 게임 여자챔피언의 충 표현을 위한 감성 요소 추출 연구」라는 논문을 교신저자로 게재하였다.



이우경 교수

논문 게재 및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ngineering Research'에 "Nonattachmen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하였다. 또한 8월에는 학지사에서 『여성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은주 교수

미혼여성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이은주 교수는 2015년 6월 30일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과학예술포럼』에 「미혼여성들의 산부인과 이용 및 방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정원 교수

군생활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5년 7월 31일 학회지 『위기관리이론과 실천』에 「군에서의 분노와 자해표현행동과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교수동정



이향아 교수
디자인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5년 7월 20일에서 7월 31일까지 한국콘텐츠학회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Dokkaebi”라는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임정선 교수
심리적 경험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임정선 교수는 2015년 7월 28일 『한국콘텐츠학회지』에 「장기해고노동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8월 31일에는 『한국심리학회지』에 「해고근로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임태순 교수
자아경영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2015년 6월 30일 한국로고스경영학회에서 발행한 『로고스경영연구』에 「부자의 사례를 통해 본 자아경영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전호진 교수
경영성과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는 2015년 6월 30일 한국국제상학회에서 발행한 『국제상학』에 「한국 물류기업의 경영성과 요인분석」이라는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하였다.



최혜라 교수
원격교육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최혜라 교수는 2015년 8월 31일 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평생학습사회』에 「사이버대 학생을 위한 한국판 비합리적 지연 척도 타당화」라는 논문을 공동(교신저자)으로 게재하였다.



정상원 교수
종교와 봉사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정상원 교수는 2015년 7월 30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발행한 『종교교육학연구』 제48권에 「기독교인의 성장기 나눔 교육경험과 종교성이 자원봉사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책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채정민 교수
논문 게재 및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는 2015년 5월 31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에 「한국인 우울 연구를 위한 문화심리학적 고찰과 제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개최된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질문지 응답 패턴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수미 교수
대인외상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5년 8월 31일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한 『상담학 연구』에 「대인외상충격이 자기체계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발연령의 조절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교신저자)으로 게재하였다.



홍선관 교수
지역 교류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는 2015년 6월 30일 디자인융복합학회가 발행한 『디자인융복합연구』에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융복합화로 스마트서비스 프레임워크 연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교신저자)으로 게재하였고, 같은 학회지에서 「유흥공간 재생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 단위농협 양곡창고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주저자)으로 게재하였다.

가을에 강추!

문화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분들의 추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담아 올바른 돈 관리의 지침을 알려주는 책도 있고 힘든 외국 생활 중 벗이 되어 준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뮤지컬 공연 소식도 전합니다. 가을에 강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강력 추천하는 풍성한 문화 e아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BOOK

돈 잘 모으는 여자들의 특별한 습관!
여자의 지갑



출판사 매경출판 저자 (주)WC&C 이여정 대표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동산기업 (주) WC&C의 대표로 있는 저자 이여정이 여자들의 마음과 행동양식에 초점을 맞춘 ‘성공지침’을 ‘지갑’이라는 소재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저자는 젊었을 때 자신과 같이 겉모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정작 능력개발과 미래에 현명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을 전환해 볼 것을 제안한다. ‘잘 쓰는 것’이 ‘잘 모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소비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여자가 되기 위한 돈 관리법을 알려준다.

BOOK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출판사 갤리온 저자 이종선

저자 이종선이 바라본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성공한 사람들’이란 단순히 돈이 많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을 줄 알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발레리나 박세은 동문(사회복지학 석사)은 이 책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한다. 책 속에 소개되는 삶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본인의 꿈이라면 많은 서사대인들이 꼭 읽어볼 것을 추천하였다.

MUSICAL

압도적 귀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2014 더뮤지컬어워즈〉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9개 부문에서 수상하고, 선을 보이자마자 ‘괴물같은 작품의 탄생’이라며 관객과 언론의 극찬이 끊이지 않았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2015년 다시 돌아온다. 유준상, 박건형 등 초연 그 이상의 무대를 빛낼 최고의 캐스트, 그리고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와 강력한 메시지로 ‘괴물과 같은 작품의 귀환’을 예고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다시 한 번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장소 : 충무아트홀 대극장 • 기간 : 2015. 11. 27 ~ 2016. 2. 8

